

www.eulji.ac.kr

을지내학보

제296호

2023년 12월 11일 월요일 1967년 12월 1일 창간

발행인 홍성희 **주간**문보영 **펴지자**시스여 **FITIO** 면지C&D

편집장 심수연 디자인 명진C&P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553 TEL 031-740-7126 FAX 031-740-7328 E-mail hakbo @ eulji.ac.kr

THE EULJI UNIVERSITY TIMES

학보사 인스타그램

학보사카카오톡채널

을지대학보제296호 **CONTENTS**



01 1면보도 2024학년도을지대학교총학생회장선거결과 05 학내보도 학내소식

대학원·의료원·동문 소식

04 제41회 을지문학상공모전

제41회 을지문학상공모전 사회·문화 현수막 공해·탕후루 열풍 지식·학생 랩그로운다이어몬드 ·성인 ADHD

08 특집 퇴임 기자의 글

) 9 특집 글로벌 로봇 시장과 한국의 현황

특집 교양학부, 2023년 HUMAN핵심역량진단결과 기자수첩 지하철 경로 우대권 개찰구 안내 음성

12 을지대학교 발전기금·장학금 모금 캠페인



성남캠퍼스 총학생회 E:NOUGH 이정윤(정) 김태은(부)



대전캠퍼스 총학생회 E:NGAGE 남휘민(정) 한지원(부)

2024학년도 을지대학교 총학생회장 선거 결과

2024학년도 을지대학교를 이끌어갈 제57대 총학생회장 선거가 지난 11월 27일 (월) ~ 12월 1일 (금) 성남캠퍼스와 11월 24일 (금) 대전캠퍼스에서 각각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선거에는 성남캠퍼스 총학생회장 단일 후보 의료경영학과 21학번 이정윤 학우와 부총학생회장 단일 후보 미용화장품과학과 21학번 김태은 학우가 출마하여 92.14%의 찬성표로 당선되었다. 대전캠퍼스에서는 총학생회장 단일 후보 의학과 21학번 남휘민 학우와 부총학생회장 단일 후보 의학과 21학번 난 남휘민 학우와 부총학생회장 단일 후보 의학과 21학번 한지원학우가 출마하여 98.84%의 찬성표로 당선되었다.

이번에 선출된 성남캠퍼스 총학생회장 이정윤 학우와 부총학생회장 김태은 학우는 회칙 개정, 장학제도 안내, 학식 개선, 편의시설 환경 개선, 캠퍼스 소통 등과 같이 복지·교육·문화·소통의 다양한 측면에서 을지대학교 학우들의 편리하고 활기찬 대학 생활을 위한 공약을 내세웠다.

당선된 이정윤 학우는 "바쁜 학업 일정 속 투표권을 행사해 주신 학우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nough라는 이름에 걸맞게 필요로 하는 만큼의 이상을 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당선 소감을 전했으며, 김태은 학우는 "투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

시고 소중한 하나의 투표권을 선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4년 여러분의 학교생활이 즐겁고 편안할 수 있도록 노력하 겠습니다."라고 당선 소감을 전했다. 대전캠퍼스 총학생회장 남 휘민 학우와 부총학생회장 한지원 학우는 대전캠퍼스 총학생회 SNS 활성화, 학생 평의 물품 대여, 강의실 환경 개선 등 소통 학생 편의 증진 환경 개선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대전캠퍼스 학우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약을 내세웠다.

당선된 남휘민 학우는 "소중한 한표 행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믿고 맡겨주신 만큼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학우분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소통하는 총학생회가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소감을 전했으며, 한지원 학우는 "저희를 믿고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학우분들 곁에 함께하며, 학우 여러분들의 편안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총학생회가 되겠습니다."라고 당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의정부캠퍼스는 모든 학과 편제가 완성될 때까지 성남캠퍼스총학생회와 협력하여 성남캠퍼스 총학생회 소속의 의정부캠퍼스 지부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학사일정

12월8일(금)~14일(목)

2023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12월15일(금)~21일(목) 2023학년도 2학기 보강기간

> 12월13일(수)~15일(금) 계절학기 신청기간

12월26일(화)~1월15일(월)

계절학기 수업기간

1월15일(월)

2024학년도 1학기 휴·복학 시작일

2월16일(금)

학위수여식(대전,성남,의정부 통합진행)

2월21일(수)~23일(금)

2024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수강신청 및 재학생 수강신청 기간

2월28일(수)

2024학년도 입학식(성남 통합진행)

02 학내보도 2023년 12월 11일 월요일

을지대학교

을지대학교, 제56주년 개교기념식 개최

을지대학교가 개교 56주년을 맞았다. 을지대학교는 23일 성남 캠퍼스를 시작으로 24일 대전캠 퍼스와 의정부캠퍼스 순으로 기 념식을 열고 30년, 20년, 10년 등 장기근속자와 대학발전에 기여한 근무유공자 등에 대해 시상했다. 을지대학교 홍성희 총장은 "우리 는 학문 간 융합이 빈번하게 발생 하고 하루가 다르게 학문과 기술



이 발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한복판에 놓여 있다"며 "을지대학교가 반세기 넘게 걸어온 보건의 료의 외길은 현재를 있게 해준 옛길로써, 누구도 따라하지 못할 을지만의 색과 향기를 품은 자랑스 런 역사로 간직하되, 구성원 모두가 시대를 거스르지 않는 새로운 인식으로 대학이 더욱 성장하는데 실력과 역량을 마음껏 펼쳐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을지대학교는 전국 4년제 대학교 중 취업률 1위(대학정보공시 2021.12.31. 기준, 졸업생 수 1,000명 이상, 본교, 분교, 캠퍼스 통합 시)와 간호사 국가고시 22년 연속 전원 합격 등 주요 보건의료 계열 국가시험에서 우수한 합격률을 자랑하며, 보건 의료특성화대학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을지대학교 학술정보원

'제11회 을지 북 페스티벌' 개최

학술정보원은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아 10월 2일(월)부터 10월 5일(목)까지 '제11회을지 북페스티벌'을 개최했다. 3개 캠퍼스에서 1,237명의 학생이 참여한이 행사는 다독상시상식, 연체 삭제 이벤트, 온라인퀴즈이벤트, 도서전시회, 전자정보박람회, 스탬프 경품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학생들은 직접 체험, 참여할 수 있는 해당 행사를 통해 도서 및 전자

자료 등을 접하며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을 얻었으며, "프로그램이 많아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다", "독서에 흥미가 생겼다", "학술정보원 이용 방법을 알게 되어 학업에 도움이 되었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한편 학술정보원에서는 위 행사 외에도 '이유(EU)있는 도서 북큐레이션' 등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용자 교육 제공, 학술연구지원 등 학생들의 학업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복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을지대학교 의정부캠퍼스

의정부캠퍼스 재학생 및 교직원 '사랑의 헌혈운동' 실시

을지대학교 의정부캠퍼스 재학생 및 교직원 29명은 11 월 14일(화) 의정부캠퍼스 내에 마련된 헌혈버스에서 '사 랑의 헌혈운동'을 실시했다.

대한적십자사 서울동부혈액원과 함께 실시한 이번 '사랑의 헌혈운동'은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따뜻한 사랑 의 마음을 전하고, 저출산고령화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불안정한 혈액 수급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마련 됐다.

의정부캠퍼스는 대한적십자사 서울동부혈액원과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헌혈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2022년부터 현재까지 141명이 참여하였다.

한승진 을지대학교 학생처장은 "혈액수급 문제가 하루 빨리 해소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정기적 헌혈운동을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계속해 나가 겠다."고 전했다.



보건과학대학 임상병리학과

제54회 임상병리학과 전공학술제 개최

지난 2023년 11월 3일, 제54회 임상병리학과 전공학술제가 열 렸다. 전공학술제는 임상병리학과 전공 동아리 학생들이 한 해 동안 실시한 연구를 발표하고 인정받는 자리로, 학문적 성과와 열정을 공유하는 중요한 행사다.

이날 학과장님의 축사를 시작으로 임상병리학과 학생들은 그 동안의 연구와 발전된 지식을 공개하며 학술제에 참여하였다. 발 표 참여 동아리는 총 7개 팀으로 발표는 다양한 주제와 분야에 걸 쳐 이루어졌으며, 학생들은 자신들의 연구를 자신있게 선보이고



토론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를 통해 학문적 토의와 아이디어 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발표 후 시상식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연구에 기여한 학생들에게는 상장이 수여되어 학문적 열정과 노력이 격려되었다.

또한, 시상식 이후 다양한 경품 추첨 행사를 진행하여 즐거운 분위기로 마무리 되었다. 임상병리학과 전공학술제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연구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고 학우들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소 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었으며, 앞으로의 발전과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바이오융합대학 식품산업외식학과

을지대 식품산업외식학과 학생들, 한국조리학회 추계학술대회서 최우수상·우수상 수상

지난 11월 4일 서울시 역사박물관에서 열린 '2023년 한국 조리학회 정기추계학술대회'에서 식품산업외식학과 학생들 이 최우수논문상과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학술대회는 '식량난 대비 지속가능한 먹거리 변화와 마케팅 대응'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을지대학교를 비롯한 경희대학 교, 영남대학교 등 총 11개 대학이 참가했다. 이중 을지대학교 식 품산업외식학과 5개 출전팀이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차지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을지대학교 식품산업외식학과 대학원



이승현 학생은 '시니어 식품산업 현황과 활성화 방안 연구: HMR 제품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최근 고 령화사회에서 급성장하는 시니어 식품 분야의 성장가능성을 발표했다.

식품산업외식학과 차성수 교수(교신저자)는 "을지대학교 학생들이 발표한 논문들이 토론자로 참석한 타 대학교수들로부터 참신하고 트렌디한 주제 선정과 구체적인 연구방법이 우수했다는 호평을 받았다"며 "학생으로서 쉽지 않은 연구에 열심히 참여해 준 학생들에게 고맙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바이오융합대학 중독재활복지학과

2023학년도 중독재활복지학과 제15회 전공학술제 진행

지난 11월 16일, 을지관 7층 비전홀에서 중독재활복지학과 제15회 전공학술제가 진행되었다. 중독재활복지학과는 성남, 의정부 두 캠퍼스로 나뉘어 있어 버스 대절을 통해 의정부캠퍼스 재학생이 성남캠퍼스로 이동하여 전학년이 참석했다. 전공학술제는 총 2부로 구성되었으며 1부에서는 전공동아리 활동보고와 중독재활복지학과 동문 선배들의 강연, 2부에서는 4학년 재학생의 졸업논문 발표가 진행되었다.



4학년 재학생들은 직접 작성한 졸업논문을 발표하고 피드백을 받으며 전공에 대한 심도있는 접근을 할 수 있었으며 전공에 대한 관심 또한 증진시킬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다고 전했다.

교양학부

교양학부, 2023년 2학기 통일특강지원사업 현장체험학습 실시

을지대학교 교양학부는 <2023년 2학기 통일부 통일특강지 원 사업>의 일환으로 특강과 현장학습을 실시하였다. 특강은 남북분단의 역사와 갈등현황, 북한사회와 도시, 통일교육 등 안 보통일 관련 전문가특강과 <안보교육현장과 명소를 찾아가다 >를취지로한 현장학습 등으로 이루어졌다. 1차 현장학습은 이 혁진 책임교수의 지도로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 625전쟁 체험전시관, DMZ박물관 등 접경지역 답사와 클리프비치(을지 인력개발원)에서의 안보관광 교육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되었



다. 을지대학교는 2019년 2학기본사업에 최초 선정되었고, 이번 학기까지 총 8회에 걸쳐 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을지대학교 일반대학원

을지대 식품영양학과 대학원생, 한국영양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우수포스터발표상' 수상



을지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임상영양전공 강혜미, 최효경 대학원생(지도교수: 백진경 교수)은 10월 13일 서울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진행된 2023 한국영양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에서 '우수 포스터 발표상'을 수상하였다.

한국영양학회는 1967년에 창립되어 지난 56년간 영양학 및 관련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한 학회이며, 2005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제정하고, 국민영양관리법(2010년)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와 함께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의 제개정 사업을 주도하면서 국민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식사와 관련된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기반을 확립하는데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주축이 되어 선도적 역할을 하는 학회이다.

이번 한국영양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는 "Understanding Metabolism: Scientific Advances and Practical Applications" 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영양소의 대사와 관련된 최신의 연구 동향을 기초과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활용적인 부분까지 아우르는 주제로 살펴볼 수 있었다.

지도교수인 백진경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며, 식사와 관련된 질병을 예방, 치료하는 임상영양 전문인이 되기 위해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을지대학교 식품 영양학과 임상영양전공 대학원생들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회의 국제학술대회에서 '우수 포스터발표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로시코리아에 페이스쉴드 5,000장 기부받아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병원장 이승훈)은 지난 11월 21일, (주)로시코리아(대표 최용호)로부터 감염 예방 목적의 안면보호 투명마스크인 '페이스쉴드' 5,000장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은 이날 오후 이승훈 의정부을지대병원장과 최용호 로시코리아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페이스쉴드 5,000장 기부 행사'를 가졌다.

'페이스쉴드'는 비말을 통한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눈, 코, 입 등을 보호하는 투명한 플라스틱 소재 마스크로, 효과적으로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방역물품이다.

최용호 대표는 "의료진이 감염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환자 치료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병원 일선에서 수고하는 병원 종사자들과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승훈 병원장은 "의 료진 안전은 환자 안전과 직결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의료진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지원에 감사드린 다"며 "의료진과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 감염 예방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는 의정부을지대병원 이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에 소재한 ㈜로시코리아는 1999년 창립한 섬유, 의류, 기타 보호용 케이스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지역 내 나눔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23년도 을지대학교 총장배 동문골프대회 개최

지난 11월 7일 을지대학교는 '2023년도 제1회 을지대학교 총장배 동문 골프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지난 3일 경기 가평군 베뉴지CC에서 개최된 골프대회에는 동문 100여 명이 참여했다. 동문 7만여명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이 대회에는 박항식 을지대 부총장과 김관복 을지대 의정부캠퍼스 부총장, 신춘식 총동문회장도 참여했다.

대회 결과 신춘식 총동문회장·이종임 동문이 최저타 우승을 차지했다. 한승진 교수는 준우승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아마추어 대회에서 주로 사용되는 신페리오 부분에서는 유문수·김미라 동문이 우승을, 정경미 동문·김관복 부총장이 준우승을 거머쥐었다. 홍성희 총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을지대가 발전과 도약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동문들의 많은 응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라며 "대학은 앞으로 총동문회와 유대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갖겠다"라고 밝혔다.



동문 소식 04 제41회 을지문학상공모전 2023년 12월 11일 월요일

제41회 을지문학상공모전

긴 시간 동안 진행되었던 제41회 을지문학상 공모전이 막을 내렸다. 장기간 진행되었던 만큼 학우들의 멋진 작품을 엿볼 수 있었는데, 105개의 작품 중 시 87작품, 수필 6작품, 소설 12작품이 접수되었다. 문학상은 최우수 1작품, 우수 2작품, 가작 6작품으로 총 9개의 작품이 당선되었다. 최우수작은 시 부문의 성남캠퍼스 임상 병리학과 김현서 학우가, 우수작은 시 부문 성남캠퍼스 장례지도학과 황태영 학우, 소설 부문 성남캠퍼스 식 품영양학과 김서영 학우가 수상하였다.

을지문학상에 많은 열정과 감수성을 보여준 학우들,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을지문학상 공모전은 매년 을지대학교의 가을을 맞이하며 진행되고 있으니 앞으로도 많은 학우들이 관심을 갖고 감성을 뽐내어주기를 바란다.



▲ 제41회 을지문학상공모전 시상식





• 수상자 • 임상병리학과 김현서 학우

시도만 해보자고 생각했던 작품인데 생각보다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서 기분이 얼떨떨합니다. 제 작품이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것도 처음이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누구한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시를 쓰고 처음 보여주었을 때 좋은 반응을 보여주었던 친구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눈처럼 내려서 만년설이 되어줘

바야흐로 종말에 가까워지는 겨울
세계는 뒤집어지고
올라가는 눈송이
얼음결정의 귀퉁이에 네 이름을 몰래 적어둔걸 난 알지
여름 없는 삶은 뭘까 생각하면서
겨울바람으로부터 훔친 네 이름을 입술에 적시고
바람처럼 부는 재즈 선율이
발목이 잘려 나가도록 춤을 추고
얼어붙은 손가락으로 눈 위에 편지를 쓰지
곱게 새긴 첫마디
첫눈처럼 내려서 만년설이 되어줘

만년설

겨울 사랑에 봄바람이 필요하지는 않으니까 영원히 봄이 오지 않는 세계를 찾아서 녹지 않는 눈사람이 존재하는 곳을 향하여

세계는 얼어붙고 입술은 떨어지지 않고 재즈 선율은 발목을 가져가고 새겨둔 이름이 녹는 걱정은 더 하지 않고 첫눈처럼 내렸던 사람은 기어코 만년설이 되었고



• 심사평 • 교양학부 김경섭 교수

최우수작인 <첫눈처럼 내려서 만년설이 되어줘>는 차디찬 겨울을 배경으로 설정하여 '새겨둔 이름이 녹는 걱정은 더하지 않고' 따라서 '첫눈처럼 내린' 그가 '만년설'이 될 것을 꿈꾼다. 영구 동토의 '얼어붙음'을 사랑의 영원성으로 연결해내는 창의적인 사고와 독창적인 언어 감각으로 주제 형상화에 성공했다. 언어의 색다른 조합을 통해 그려지지 않을 이미지마저 잘 형상화하는 남다른 재주를 지녔다고 본다.



• 수상자 • 식품영양학과 김서영 학우

저는 '어중간하다'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기쁘다는 것은 웃는 이미지가, 슬프다는 것은 우는 이미지가 떠오르지만, 기쁨과 슬픔 사이의 그 오묘한 감정은 이미지로 떠올리기 어려워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말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은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 소설에서 다뤘던 수렵과 사냥의 차이도 이러한 생각에서 시작됐습니다. 멧돼지를 잡는다는 하나의 행위로 인해, 소설속 '나'는 여러 영향을 받으며 살이가니까요. 이처럼 이번 소설을 통해서 하나의 삶, 하나의 행동이 그저 단순하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 아닌,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심사평 • 교양학부 김재희 교수

이 작품은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듣고 고향에 내려가 아버지를 애도하는 내용이다. 애도의 방식은, 과거와 현재, 아버지의 삶의 방식을 멧돼지를 잡는 두 사냥 방법으로 대비시키며 아버지의 사냥 방식에 애틋함을 표현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과거 아버지의 멧돼지 사냥은 동네 사람들과 함께 협동하여 돼지창으로 잡는 법이었고, 현재 나는사냥개들과 더불어 엽총으로 멧돼지를 잡는다.

아버지를 비롯하여 동네사람들과 함께 돼지창으로 멧돼지 를 잡는 장면 묘사가 구체적이고 힘이 있다.

마을 공동체가 함께 사냥을 하고 몫을 나누고 정을 나누든 과거의 방식에 대한 애틋함이 아버지에 대한 애도와 더불어 자 표첨되고 있다.

잘 표현되고 있다. 소설적 구성과 문장력이 좋아서 우수작으로 뽑는다.

멧돼지를 잡는 두 가지 방법

담배 연기처럼 자욱한 입김이 내 얼굴을 가득 덮 었다. 한국에는 해발 이천 미터가 넘는 산이 없어 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수도승도 아니고, 멧 돼지를 잡는 데 꼭 고생이 필요하던가. 쇳덩어리 나 다름없는 엽총을 들고 길을 만들어나가기에 는 이마저도 벅차다. 숨소리가 점차 고요해지며 낙엽 굴러다니는 소리가 귓가를 웅장하게 매웠 다. 가방 안쪽 위성전화에서 울리는 진동. 섬칫하 며 든 이질감은 내가 이곳에서 이방인이기 때문 일까, 혹은 저 멀리에 있는 이방인에게서 연락이 온 것일까. 가방 안에서 규칙적으로 울려대는 위 성전화를 꺼냈다.

"야야, 느그 아버지 돌아가셨단다."

전파를 타고, 끝에 와서는 위성까지 돌고 돌아 온 아버지의 부고 소식. 어디서 시작됐는지도 모르는 이야기였다. 오늘은 꼭 큰 놈을 잡아다 팔아아버지에게 용돈이나 쥐어드릴 예정이었건만. 어제 광을 내 한 발도 쏘지 못한 엽총만 반짝거릴 뿌이었다.

아버지가 어떻게 숨을 거두었는지는 아무도 몰 랐다. 집 안에서 잠을 자듯 고요히 돌아가신 걸 이웃이 발견한 게 전부였다. 아버지는 생전의 바 람처럼 분묘에 묻히지 못했다. 화장되어 비싼 로 얄층, 그 한 층 아래에 안장되었을 뿐이었다. 아 버지가 살아계셨더라면 한 곳에 오래 못 있는 아 버지 성격 상 아무리 비싼 화장터에 안장된다 하 더라도 소리를 치며 반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계 절을 가리지 않고 산으로 뛰어다녀야 하는 엽사 의 특성 탓에 관리에 손이 많이 가는 분묘는 쓸 수가 없었다.

나는 이제 한 사람의 온기조차 남아있지 않은 시 골집의 문을 열었다. 방구석에는 홀로 살던 남자 의 삶을 보여주듯 재떨이와 약통, 색이 바랜 이불 과 베개가 놓여있었다. 이미 미니멀리즘의 삶을 실천하고 있었다니. 아버지는 내가 생각한 것보 다 더 신세대를 살고 있었나보다. 나는 화장실 옆 에 있는 작은 창고 문을 열고는 좀 전에 한 생각 을 철회했다. 창고에는 온갖 잡동사니가 널브러 져 있었다. 아버지가 텃밭을 가꿀 때 쓰던 작은 농기구들 몇 개 빼고는 오랫동안 사람 손을 타지 않은 듯 먼지가 자욱했다. 창고 구석에는 아버지 가 소중히 간직하던 상자 하나가 서랍장 위에 놓 여있었다. 내가 어렸을 적 자주 본 상자였다. 상자 안에는 광목을 꼬아 만든 창집에 돼지창이 소중 히 꽂혀 있었다. 이 돼지창은 아버지가 시간이 날 때마다 기름을 먹이며 애지중지 하던 것이다. 기 름이 잘 먹은 돼지창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광을 유지하고 있었다.

(중략)





• 수상자 • 장례지도학과 황태영 학우

일단 개최해주신 학보사와 평가를 해주신 교수님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살아오면서 제일 가깝고 삶의 경험이나 고통 같은 게 생각해보면 제 부모님이랑 저 자신밖에 없어서 그런 것에 대한 글을 썼던 것 같습니다.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사평 • 교양학부 김경섭 교수

우수작인 <부성예찬>은 아버지에 대한 애정을 색다르게 표현한 작품이다. '감정에 이름 붙이는 법을 가르치지 않은' 아버지를 닮았지만, 화자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하지만 그 선언은 부성에 대한 애틋함에서 나온 절절한선언이었다. 이 학생의 다른 작품인 <준순(浚巡)>도 빼어난수작(秀作)으로 평가한다.

부성예찬

아버지를 닮은 나는
감정에 이름 붙이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
힘듦을 당연하다 말하는 세상에서 살아온
아버지의 고통을 가늠할 수가 없어
아직도 우울을 쉽게 병이라 말하지 않는
이 땅에서 그 시대를 건너오면서
아버지가 속으로 삼켜낸 감정과 어쩌면
아직도 이름을 붙이지 못한 감정이
얼마나 많았을까 생각하면 나는 그냥 아득해
나는 아버지를 닮았으니까.
난 어렸을 때도 아버지 몸이 작은 걸 알았어.
가끔은 그냥 힘들어 보이는 그 몸으로
그 작은 몸으로 지금까지 아버지 당신 걸
많이도 버려왔는데

그렇게 버리고 참아가면서 이뤄내고자 한 것이 나라면, 아버지가 다 살고 난 뒤에 남는 것이 나라고 한다면 나라고 한다면 내가 만약 아버지라면 그걸로 됐을까? 나는 모르겠어 집과 쌀과 옷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피땀으로 지어 오셨다는 것을 이제는 알아요 그걸 다 견디고, 정말 나 같은 걸로 그걸로 됐을까? 그래서 아버지, 나 항상 아버지를 우러러보지만 아빠처럼은 못 살 것 같아

을지대학보

06 사회·문화 2023년 12월 11일 월요일

막말과 비난이 뒤덮은 거리

현수막 공해



최현민 학생기자 hmchoi0515@naver.com

최근 들어 거리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이 부쩍 늘었다. 선거철에나 볼 수 있었던 현수막이 시기를 가리지 않고 거리를 도배한 건 지난해 12월 시행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때문이다.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 현안 관련 현수막은 별고의 신고 없이도 설치할 수 있게 되면서, 각 정당이 경쟁하다시피 현수막 게시에 나선 것이다. 그 자체로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문제도 있지만, 원색적인 비난과 막말이 주를 이루는 문구는 더욱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폭증하는 민원, 지자체가 먼저 칼 뽑았다

옥외광고물법 개정 후, 무분별하게 게시된 정당 현수막이 시민 안전과 도시 미관에 악영향을 준다는 민원이 빗발치기 시작했다. 일부 지자체는 이를 강제로 철거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정당 현수막의 게시 장소와 개수를 제한하는 조례를 마련하여 지난 7월부터 이에 어긋나는 현수막을 철거하기 시작했다. 뒤이어 울산, 광주 등 타 지자체에서 도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정당 현수막이 거리를 뒤덮고 있는 지역들도 있는데, 이는 현재 지자체들의 조치가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조례를 제정하는 주체는 국회가 아닌 지방의회로, 그 효력은 해당 지자체 내에서만 발생한다.

현수막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의 갈등

그러나 이러한 지자체의 자체적 노력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인천시의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다'며 대법원에 조례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옥외광고물법은 '법률'로서 각 지자체의 조례보다 상위법에 해당한다. 그러니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옥외광고물법에 위배되는 조례는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자 인천시는 '옥외광고물법 자체가 위헌'이라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옥외광고물법 역시 우리나라 최고법인 헌법에 어긋난다며 행안부와 같은 논리로 맞선 것이다. '법대로 처리하라'는 정

부와 '악법이니 따르지 않겠다'는 지자체 사이에 갈등이 빚어진 셈이다.

대법원 결정에도 아직 남은 숙제

지난 9월 대법원은 행안부의 조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일단 대법원이 인천시의 손을들어준 것이다. 인천시는 대법원의 기각 결정에 힘입어 현수막 단속을 지속해나가고 있고, 이 사례를 참고하여 비슷한 조치를 취하는 지자체들도 늘고 있다. 시민들도 대법원의 결정과 지자체의 조치를 반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아직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난 것은 아니기에, 조례가 상위법과 상충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거나 국회에서 선제적으로 법률을 재개정해야만 이 문제가 완전히 풀릴 전망이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법 개정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들이 선거를 코앞에 두고 본인들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을 스스로 포기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환경도, 시민도, 아무도 반기지 않는다

최근 정치권에서 떠오른 화두 중에는 '기후 위기'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인지 이에 관한 주장을 담은 정당 현수막도 여럿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반(反)환경적인 현수막을 통해 환경 관련 현안을 시민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정치권의 모습은 다소 모순적이다. 환경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전자 현수막이나 온라인 광고처럼 비교적 친환경적인 대안을 택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여론도 정당 현수막의 난립에 부정적이다. 인천시가 실시한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7.5%가 현수막 철거 조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을 설득하기 위해 걸었던 현수막이 오히려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정치권은 자신들의 책임이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달콤한 열풍 뒤에 쓴 후폭풍

탕후루 열풍



김기찬 학생기자 kichan8306@naver.com

쌀쌀한 날씨와 함께, 어느덧 올해도 끝이 다가오고 있다. 매년 우리는 다양한 유행을 겪으며 살고 있다. 평생 갈 것 같았던 유행이 어느 순간 우리의 추억 속으로 사라지기도 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 했던 유행들이 들이닥치기도 한다. 그렇다면 2023년을 대표하는 유행은 무엇이었을까? 여러 유행 이 있었지만, 오늘은 그중에서도 일 년 내내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간식 '탕후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오감으로즐기는간식

탕후루는 다양한 과일에 설탕, 물엿 등의 시럽을 얇게 바른 다음에 그대로 굳혀서 먹는 길거리 간식이다. 2018년경에 국내에서 잠시 흥했던 적이 있었으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진 못했다. 그렇게 사라지는 줄 알았던 간식은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서 대유행을 불러일으켰다. 언론사 '더팩트'에 따르면, 한 탕후루 프랜차이즈 업체는 5개월 만에 점포가 6배나 늘었다. 사실 달콤한 설탕 껍질과 새콤한 과일의 조화는 우리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진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탕후루를 떠올렸을 때 상상되는 이미지는 '새콤달콤'뿐만이 아니다. 인플루언서들의 ASMR은 소리를 통해 소비자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고, 유튜버들이 직접 설탕을 입혀 만드는 영상은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탕후루는 단순히 미각뿐 아니라 시각과 청각에도 만족감을 주는 수단인 것이다.

편승효과와 탕후루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대왕카스테라, 벌집 아이스크림 등 탕후루처럼 크게 유행한 간식들이 여럿 있었다. 그러나 번화가에 우후죽순 늘어서 있던 점포들은 이젠 찾기 힘들다. 유행에 맞춰 기하급수 적으로 늘어난 공급은 수요가 떨어지자 급격히 갈 길을 잃게 되었다. 획기적인 변화를 주며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고자 꾸준히 노력했음에도 그들의 등을 다시 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 유행에 따라 상품을 구매하는 현상인 편승효과에 의해 소비자는 남들이 관심 없는 것엔 더 이상 눈길을 주지 않게 된 것이다. 2023년의 트렌드인 탕후루의 경우, 최근 약 1년간 기복 없이 꾸준하게 성장이다. 국내에 존재했던 여러 유행과는 사뭇 달라 보이기도 한다. 과일 간식이라는 특성상 언제든지 가볍게 찾을 수 있으며 과일마다 각양각색의 맛과 비주얼을 가졌기에 비교적 질리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다. 다른 유행들과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행보가 탕후루의 미래를 궁금하게 한다.

달콤함에 숨겨진 이면

그러나 꾸준한 인기에 못지않게 탕후루는 국가와 언론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있다. 한국분 석센터 영양성분 검사 결과서에 의하면, 샤인머스캣 탕후루에는 약 20g의 당류가 들어있다. 이는 WHO 1일 당류 권장량인 50g과 비교해 봤을 때 꽤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치과의사 강 씨의 의 견에 따르면 설탕 코팅으로 인해 충치 유발 지수가 매우 높을 것이며 치아의 미세한 틈에 자리 잡 아 완벽한 번식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 지위원회 종합감사엔 유명 탕후루 프랜차이즈 사내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의원들은 "사회적 책임도 다해야 한다", "소아비만이나 당뇨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 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듯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탕후루를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까. 우리는 흔히 소셜 미디어와 언론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한다. 남들의 SNS를 보며 호감을 느끼고 있다가도, 건강에 좋지 않다는 기사를 통해 한순간에 불호로 바뀌기도 한다. 맛이 간식으로써 훌륭한 것은 맞지만, 줄을 서면서먹을 정도인지는 의문이다. 그리고 탕후루의 당류 함량은 부모세대의 간식이었던 달고나와 비슷하며, 동시에 스무디의 절반 정도이다. 유난히 맛있는 간식도, 유난히 몸에 안 좋은 간식도 아닐 수 있다는 의미이다. 자신의 기준과 줏대를 갖고 정보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2023년 12월 11일월요일 지식·학생 07

실험실 속 진짜 보석

랩그로운 다이아몬드



신희진 학생기자 heejin8885@gmail.com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가장 단단한 강도로 영원한 아름다움을 유지한다는 이 문장은 천연 다이아몬드를 대표하는 카피다. 하지만 이렇게 영원할 것 같았던 다이 아몬드도 랩그로운 다이아몬드의 등장으로 인해 점차 그 가치를 잃어간다.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는 랩에서 만들어지는 다이아몬드로 랩다이아(Lab Diamond)라고도 불리며 성분, 굴절률, 경도 등 물리화학적 특성이 천연 다이아몬드와 같고, 가격은 40%나 저렴한 합성 다이아몬드다.

랩 다이아몬드, 어떻게 만들까?

랩다이아몬드를 만드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고온고압법(HPHT)과 화학기상증착법(CVD)이다. 고온고압법은 탄소 파우더에 철, 니켈 등 금속 촉매제를 넣어 고온고압으로 합성해 다이아몬드 '씨앗'을 성장시키는 방식이다. 반면 화학기상증착법은 탄소 원자에 수소와 메탄가스 분자를 주입해 고온의 플라스마로 화학반응을 이끌어낸다. 이때 탄소 원자가 필름 형태로 계단을 이루듯 쌓이며 다이아몬드 원석으로 성장한다. 다이아몬드의 모형으로 성장한 탄소 원자는 레이저 각인으로 고유 번호를 새기고 가공을 거쳐 비로소 랩그로운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이다. 이때 천연 다이아몬드는 깎으면 깎을수록 손실이 나기 때문에 이상적인 비율이 아닌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합의점을 찾게 된다. 반면 랩다이아몬드는 무게 타협 없이 가장 이상적인 비율로 연마하기 때문에 천연보다 더 순수하고 비율이 좋다.

맞춰나가는 소비 트랜드

다이아몬드 전문기업 KDT다이아몬드가 모바일 사용자 설문 플랫폼 '크라토스에 의뢰해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41.6%가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를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부정적인 답변은 22.5%로 비교적 적었다. 랩다이아몬드는 천연 다이아몬드처럼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이나 노동 착취 등의 논란도 없어 최근 젊은 층에서 주목하는 가치 소비 트렌드에도 부합

한다. 천연 다이아몬드를 1캐럿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500L의 물이 필요한 반면 같은 양의 랩다이아몬드는 물 18.5L면 충분하다. 또한 채굴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 유발 물질이 없고 비윤리적 노동 행위를 방지할 수 있어 친환경적이다. 요즘은 랩다이아 브랜드도 유행이다. 최근 젊은 층에서 집중하는 주얼리 브랜드들이 랩다이아를 업고 속속히 백화점 시장에 상륙하고 있다.

'진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법

그렇다면 랩다이아몬드와 천연 다이아몬드를 구별하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랩다이아와 일반 다이아는 과학적 특성이나 물리적 특성이 모두 같다. 천연 다이아몬드가 고드름이라면 랩다이아는 냉동실의 각얼음인 셈이다. 그러나 두 다이아몬드를 현미경으로 살펴보면 허리 면에 레이저 각인을 확인할수 있다. 이 각인의 식별을 통해 해당 다이아몬드가 어디서 어떻게 감정되었는지를 파악하여 다이아몬드의 천연 여부를 구분할수 있다. 반대로, 확실한 전문가의 감정이 아니면 둘을 구분하기는 어렵다. 이에 다이아 기업들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천연 다이아 소비자와 랩그로운 다이아 소비자를 아예 구분짓는다. 천연 다이아를 소비하는 쪽은 고급형 시장, 랩그로운 다이아를 소비하는 쪽은 보급형 시장과 같이 급을 나눠버리는 것이다.

다이아몬드 시장의 교체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는 희귀 보석 시장 점유율을 뒤집었다. 앞으로도 이를 선두로 수많은 인공 보석이 생겨날 전망이다. 과거 천연보석을 사는 것 이외엔 대안이 없던 시대에서 이제는 천연과 유사하고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를 값싸게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아직 초기 단계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추세지만 다이아몬드의 희소성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지금, 과연 랩그로운 다이아몬드가 천연 다이아몬드를 대신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당신의 게으름, 성격이 아닐 수도 있다

성인 ADHD



김태경 학생기자 eunursing@naver.com

최근 몇 년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 그중 한 프로그램에서 예상치 못했던 유명인들이 '성인 ADHD' 의심 진단을 받아 큰 충격을 주었고 해당 방송에서 소개된 자가진단법이 SNS를 중심으로 큰 관심을 끌었다. 이처럼 성인 ADHD가 매스컴을 통해 널리 알려지며 성인 ADHD로 진단받은 환자는 5년 동안 무려 5배나 증가했다.

ADHD, 정확히 무엇일까?

주의력 결핍/과잉행동 장애(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ADHD)는 주의산만, 과잉행동, 충동성을 주 증상으로 보이는 만성질환이며 대개 초기 아동기인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 발병하여 만성적인 경과를 밟는 특징이 있다. 일반적으로 학습 장애나 다른 발달상의 장애를 겸하는 경우가 많고, 남아에게 3배 이상 많이 관찰된다.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뇌 안에서 주의집중 능력을 조절하는 신경전달 물질(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등)의 불균형으로 발생한다는 주장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아 ADHD를 겪는 학령기 아동은 산만하게 주위를 돌아다니며 주변 사람을 불편하게 하거나 피해를 주는 등 주의집중력 부족, 충동성 및 과잉행동 증상을 보인다. 소아 ADHD의 유병률은 약 7%이며. 이 중 약 60%는 청소년기까지 계속된다. 그리고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소아 ADHD의 특징적 증상인 과다활동이 감소해 마치 증세가 나아진 것처럼 보인다.

성인 ADHD의 오해와 진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소아 ADHD 환자 2명 중 1명은 성인이 되어도 ADHD 증상을 보인다. 단 성인기에 들어서는 주의집중력의 부족이나 충동성은 계속 유지되는 반면, 과잉행동 증상은 줄어들기 때문에 ADHD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다. 더욱이 어렸을 때 ADHD 진단을 받지 않는 이상 성

인 ADHD 환자들은 본인들의 증상을 질환으로 인식하지 못한다. 산만함 등의 증상을 단순히 개인의 기질, 성격으로 여기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것이다. 성인 ADHD 환자들은 심한 감정 기복과 잦은 지각 등으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여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등의 모습을 보인다. 이처럼 생활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타나는 우울증이나 불안장에, 대인공포증 등 다른 정신 질환을 치료받으러 왔다가 자신이 성인 ADHD 환자임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혹시 나도?' 성인 ADHD 자가진단법

만약 자신이 성인 ADHD로 의심된다면, 다음 중 자신이 해당하는 문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자.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 '모임에 항상 늦는다', '휴대폰이나 자동차 열쇠 같은 물건을 하루에도 몇 번씩 찾는다', '저축을 못 하고 돈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영상을 볼 때 2배속으로 시청한다', '4차원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 '말실수 등으로 사람들에게 오해를 자주 받는다', '6개월 이상 게임 중독에 빠진 적이 있다', '주변 친구들보다 이직이나 퇴사가 잦은 편이다', 위의 자가진단 항목 중 해당하는 사항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성인 ADHD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러나 12세 이전부터 산만함, 덜렁거림 등의 소아 ADHD 증상을 보였고 현재도 성인 ADHD의 특징적 증상 때문에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느낀다면 전문가와 상담해 볼 것을 권고한다.

필요한건이해와수용

ADHD는 유년기뿐만 아니라 생애 내내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는 정신 질환이다. 특히 성인이 되면 더 많은 사회생활 영역에서 더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국내 ADHD 환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선 만큼 ADHD가 아동과 청소년에 국한된 질병이 아니라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더 나아가, 그로 인한 증상이 개인의 성격 탓이 아닌 일종의 기능장애에서 기인함을 수용하고 치료를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퇴임 기자의 글



김다현 학생기자 alice01115@naver.com

학보사는 대학에 들어와 처음으로 들어간 학교 내 단체였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글 쓰는 걸 좋아하던 21살의 나는 그렇게 학보사의 기자가 되었다. 사실 나는 정 시로 입학해서 학보사 지원서가 내 인생의 첫 자기소개서였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면접을 보았는데 너무 떨려서 방문을 닫고 청심환까지 먹었던 기억이 난다. 학보사의 일원으로 지내온 과거는 나의 대학 생활 중 가장 잘하고, 자랑스러운 경험이라고 말하고 싶다. 기자로 활동하며 정말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세상일에 대해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네이버 실시간 검색창만 보던 내가 이제는 신문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매일 아침 학교에 가며 기사를 확인하는 모습에 스스로 신기할 정도였다. 그러나 분명 간호학과 학생으로 학과 공부와 학생기자로서 매번 좋은 기사를 작성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기사 마감일과 학과의 시험 기간이 겹치는 시기에는 내 욕심으로 남들보다 더 늦게 자고 더 바쁘게 움직여야 했다. 세상에 의미 없는 경험은 없다고 누군가 말했던가. 마감이 생명인 이곳에서 나는 책임 감과 효율적으로 시간 관리하는 능력을 배울 수 있었다. 이렇게 터득한 능력은 아마 나의 앞으로의 직업에서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1학년 때 기사 스크랩을 하면서 도움이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러한 과정은 나의 과제에도 좋은 영향을 주었다. 매 순간 학보사의 기자라는 것이 자랑스러웠으며 신입생에게도 학보사



를 추천하곤 했다. 무엇보다 날것이었던 나의 글을 정성스럽게 피드백해 준 나의 동기들과 선배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 캠퍼스가 다르고 코로나로 대면 활동은 적었지만 1학년 때부터 지금의 퇴임 기자까지 학보를 함께 채워나갔던 53기들의 찬란한 앞날을 기도한다. 또한 학과 선배이자, 학보사 직속 선배셨던 윤다현 선배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싶다. 열정적이고 성실한 선배를 보며 나 또한 같은 일을 걷고자 했고, 지금의 내가 있게 되었다. 3학년이 되어 학생기자로서의 활동은 끝이 나지만, 54기와 55기 후배들과 더불어 앞으로의 후배들에게 학보사를 잘 이끌어 주길 바란다. 더 넓은 세상을 바탕으로 다시 만나길 바라며 글을 마무리한다.

심수연 학생기자 syshim0224@naver.com



대학 생활의 3/4을 함께한 이곳과 이제 작별이라니 시원섭섭하다. 아마 내 대학의 청춘은 학보사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년 전의 나는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학보사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학창 시절 내내 문예부에서 동아리 활동을 해봤기에 별반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했지만, 막상 들어와 보니 학보사는 생각 이상으로 만만치 않은 곳이었다. 부끄럽지만, 첫 피드백을 받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글을 잘 쓴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선배님들의 예리한 지적을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오만한 사람이었는지 느꼈다. 전공 공부만으로도 벅찬데 고심해서 고른 소재가 번번이 반려당하고 기사마저 싣지 못하던 시절에는 한밤중에 자판을 두드리다 말고 울기도 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기사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게 했고, 완벽한 글을 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말 학생기자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 것 같아 뿌듯했다. 사실 3년 내내 체전이나 축제 같은 학교 행사를 제대로 즐겨본 기억이 단한 번도 없지만, 카메라를 들고 여기저기 취재를 다니던 기억은 아마 학보사 기자였기 때문에 겪을 수 있었던 색다른 경험이 아닐지 싶다. 어느 순간 나는 3학년이 되었고, 편집장이라는 위치까지 올라와 있었다. 솔직히 편집장 역할이 쉬웠다고 말한다면 아마 거짓말일 것이다. 기사만 잘 작성하면 되던 학생기자 시절과 다르게 전체 학보를 총괄하고 검수하는

일은 상당히 고되었다. 생전 처음 해보는 일도 많았고, 가끔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곤란하기도 했다. 연초에는 정말 큰일 나는 게 아닐까 싶어 번번이 불안했지만, 다행히 임기 마지막까지 무사히 마치게 되었다. 부족한 내가 한 해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던 것은 아마 많은 사람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 자리를 빌려 서투른 후배 편집장을 언제나 따뜻하게 도와 주신 이윤서 선배님과 오명은 선배님, 그리고 올 한해 나를 믿고 따라와 준 동기들과 후배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비록 나는 이번 학보를 마지막으로 떠나지만, 앞으로 학생기자들이 만들어 나갈 학보는 더욱 훌륭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마지막으로, 학보사에서는 봄에는 을지사진공모전, 가을에는 을지문학상을 개최하고 있으니, 내년에도 을지대 학우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조예원 학생기자 choywalice@naver.com

앞만 보고 무작정 달리던 고등학생 때 나는 대학생이 된 모습을 상상하면서 버텼던 것 같다.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이런 힘들었던 시기를 보상 받기라도 하듯 여러가지 경험을 해보고 싶었다. 이로 인해 나는 알찬 대학 생활을 보내고자 하는 욕심에 무작정 한번쯤은 해보고 싶었던 학생기자를 해보고 싶어 도전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지원 했다. 평소에 친구와 대화할 때도 대화내용의 핵심만을 듣길 원하고, 긴 글을 요약하던 나의 습관은 학보 사에서 글을 더욱 잘 다듬을 수 있게하는 디딤돌이 되었다. 생각보다 기사를 쓰면서 글을 잘 쓴다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많은 피드백을 받으면서 한층 더 전보다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기사는 나의 생각이 담겨있지 않는 정확한 사실만을 전달하는 것이다. 항상 나의 생각을 말하는 것을 좋아하던 나에게 학보사 기사는 처음에는 다소 막연하게만 느껴졌다. 하지만 노력하면 안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점점 글을 쓰는 속도가 빨라지고 어휘가 풍부해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선배들이 해주는 피드백도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같은 동기가 쓰는 글을 보고서 감탄을 했던 것 같다. 시간은 똑같이 주어지는데 글을 그렇게 풍부하게도 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여러번 했던 것 같다. 항상 마감기한을 지키기 위



해서는 나의 일정을 정확하게 알고 세분화하는 노력이 필요했다. 이런 경험이 꼼꼼하게 대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밑거름이 된 것 같다. 항상 옆에서 같이 활동을 하는 동기임에도 나의 글을 피드 백해주고 항상 도움을 주었던 수연이에게 감사인사를 전하고 싶다. 3년이라는 세월동안 학생 기자를 하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해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이 나를 설레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한 층 더 성장한 내가 된 것 같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나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조리있고 정확하게 전달 할 수 있는 능력은 정말 중요하다. 이런 글 쓰는 경험 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 친구들과 선배들, 후배들과도 소중한 인연을 맺을 수 있었다. 이제 나는 이런 결실의 끝을 맺고자 한다.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는 말이 있다. 이 말처럼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어리숙한 1학년이었던 내가 이제는 후배들의 피드백도 해주고 한층 더 성숙해진 선배가 되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나에게 닥치든 시작에 미약하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학보사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노력하여 스스로 성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끝이 오지 않을 것 같던 53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만, 남은 54기와 55기 후배들도 본인의 결실을 잘 맺고 앞으로 나아가며 한층 더 성장한 내가 되었기를 소 망하면서 글을 마무리한다.



글로벌 로봇 시장과 한국의 현황

로봇산업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는가? 로봇은 사람의 업무를 돕는 모든 기계장치를 말한다. 이는 용도에 따라 산업용과 서비스용으로 나뉜다. 보통 산업용 로봇은 공장자동화, 협동 등의 기능을 하고, 의료, 군사, 안내, 소셜 등 여러 분야의 서비스용 로봇이 있다. 최근 서비스 로봇이 대폭 늘어나 실제 식당에서 사람이 아닌 로봇이 서빙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우리가 쉽게 접하는 건 서비스 로봇이지만, 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산업용로봇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거시적인 측면에서 세계의 로봇 산업은 현재 어떤 동향을 나타내고 있을까?

세계적 로봇 시장의 동태

글로벌 로봇 시장은 243억 달러(한화 약 33조)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 2015~2020년 사이의 전체 로봇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9%이다. 그 중 산업용은 8%, 서비스용은 10%의 비율로 나타났다. 로봇 중에서도 특히 서비스용 로봇 시장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5년 43.6%에서 2020년 45.7%까지 증가하였다. 서비스용 로봇은 전체 시장의 52.1%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 글로벌 서비스용 로봇은 의료용(38.7%), 가정용(32.8%), 물류(9.0%)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료용 로봇은 수익성이 높아 최대시장으로 부상했다. 그리고 주요 제조 강국으로 구성된 산업용 로봇 시장은 중국(39%)이 가장 큰 시장으로 나타났다. 산업용 로봇 제조는 일본이 선두에 있고, 상위 5개 기업이 전체 시장의 59%를 차지하고 있는데 상위 5개 기업 중 3개의 기업이 일본 기업이다. 정리하자면, 산업용 로봇 제조는 일본, 시장은 중국이 장악한 것이다.

지방의홀서빙로봇화

한국은 제조업 로봇 밀도가 세계 1위일 정도로 로봇 수요가 높다. 노동자 1만 명당 로봇 대수를 세계 평균(126대)과 비교하였을 때 한국은 932대로 약 7배 높은 수치를 보인다. 이는 지방의 서비스 로봇 사용에서 두드러진다. KT 대구·경북 광역본부는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대구·경북에 테이블 오더 서비스 'AI 서빙 로봇' 400여 대를 보급했다. '하이오더'는 KT AI 서빙 로봇과 연동한 테이블 주문 서비스로 좌석에 앉은 고객이 비치된 태블릿을 통해 음식 메뉴를 선택하고 바로 결제까지 할 수 있어 키오스크 방식보다 편리하다. 관리자가 언제든 매장 상황이나 고객 요구에 맞춰 음식 사진과 메뉴 등을 수정할 수도 있다. 또 '빈 그릇 치우기' 기능이 있어 식사를 끝낸 고객은 로봇을 호출해 빈 접시 등 식기류를 반납할 수 있다. 음식이 조리되면 관리자가 테이블을 확인하지 않아도 하이오더와 연동한 AI 서빙 로봇이 주문한 테이블까지 자율주행으로 음식을 가져다준다. 센서 기반 회피 기능과 자동복귀 기능으로 장애물과 충돌 없이 안정적으로 주행한다. 연령대가 다양한 손님들 모두 큰 어려움 없이 홀서빙 로봇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큰 강점이다.

나아가기 위한 물러섬

위의 내용과 같이 한국의 로봇 시장은 활발하지만, 로봇 산업 종합경쟁력은 미국, 일본, 중국, 독일, 스위스 등 주요 6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R&D 역량에서도 한국은 중국에 근접 추격당하고 있다. 한국은 부품 생산 역량을 의미하는 조달 부문에 있어 가장 취

약하다. 주요 로봇 부품 일본 의존도가 로봇 감속기 61%, 서브모터 65.1%이다. 그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필수 부품의 국산화율도 낮은 상황이다. 로봇 가격의 35% 이상을 차지하는 구동부의 국산화율이 15%밖에 되지 않고, 소프트웨어도 24%에 국한되어 있다. 인력 경쟁력에서도 미국, 일본, 독일 등에 뒤처져 있다. 20년 기준 한국의 로봇 전문인력 부족률은 35%를 기록했다. 한국 로봇 기업 대상 조사 결과,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야는 '기업 간 연계'(12.7%)로 나타났다. 기업별로 전문 영역에 특화, 분업하는 중국 등 경쟁국 기업들에 비해 한국은 각기업이 가치사슬 전체를 단독으로 담당해 경쟁력이 저하된 것으로 보인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해야할 것은 무엇일까

현재 한국의 로봇 산업은 일본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2017년 부품 품귀 현상이 일어나 1년 매출액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와 같은 문제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는 외산의 존도를 낮추고 기반 기술력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서비스 영역이 발전되도록산업의 균형 있는 발달이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로봇이 신산업 서비스 분야에서 발달하기 위해서는 규제적 혁신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재 배달 로봇은 승강기 탑승 제한 및 보도 통행 불가한 규제 사례가 있다. 이와 같은 규제 사례의 조정을 통해광범위한 서비스 로봇 적용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로봇 인력 경쟁력을 향상해야 한다. 이렇게 더욱 전문화된 인력을 구성하여 산업내 분업 구조를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민서 학생기자 l2alstj@naver.com



010 특집 2023년 12월 11일 월요일

교양학부

2023년 HUMAN핵심역량 진단 결과



을지대학교 교양학부(학부장 김경섭 교수)에서는 재학생의 대학 HUMAN핵심역량의 함양 수준과 교육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체 개발한 측정도구(5점 만점)를 활용한 HUMAN핵심역량 진단을 실시하였다. 해당 진단은 교양교과목 수강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진단결과 HUMAN핵심역량 중 인문학적 소양(H)이 3.4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봉사·헌신 역량(A)이 3.9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핵심역량에 대한 교육요구도는 1순위로 글로벌커뮤니케이션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글로벌 자기효능감, 역사적 소양 순으로 높 게 나타났다. 을지대학교 교양학부에서는 이러한 진단결과를 토대로 HUMAN핵심역량 기반 교양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교양학부에서는 교양교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교양교과목을 개발하고자 제10회 EU교양교과목 제 안대회를 개최하였다. 해당 대회는 2023년 9월 4일(월)부터 11월 18일 (금)까지 총 19건의 제안서를 접수받아, 심사를 통해 7건을 선정했다.

교양학부, 제10회 EU교양교과목 제안대회 수상

대 상 | 스포츠아웃도어학과 박준형 [대학생이 꼭 알아야 할 시사], 임상병리학과 이지은 [인간관계의 본질]

우수상 | 의료경영학과 최기은, 조은영, 임자은, 간호학과(성남)박재은, 방사선학과 지승호, 강규리, 빅데이터의료융합학과 최수빈

HUMAN 핵심역량 및 하위역량별 평균

영역		평균		
HUMAN 핵심역량	하위역량	하위역량	HUMAN핵심역량	전체역량
	문화예술적 소양	3.65	3.48	3.76
인문학적 소양	역사적 소양	3.34		
인문학적 조성	철학적 소양	3.37		
	문학적 소양	3.56		
	글로벌 자기효능감	3.57	3.70	
글로벌 역량	타문화 수용	4.01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3.52		
	창의적 능력	3.78		
창의·융합 역량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3.58	3.71	
	융합적 사고 능력	3.76		
봉사·헌신 역량	공감능력	4.08	2.07	
공사 연신 역당	자발적 실천능력	3.85	3.97	
	의사소통 능력	3.91		
소통·협업 역량	협업 능력	3.96	3.94	
	갈등조정 능력	3.95		

HUMAN핵심역량 교육요구도

핵심역량		중요도	현재수준(역량)	교육요구도	
Ť	666	오프포	언제구판(극당)	중요도-현 수준	순위
	문화예술적 소양	3.87	3.65	0.22	14
인문학적 소양	역사적 소양	4.01	3.34	0.67	3
	철학적 소양	3.80	3.37	0.43	9
	문학적 소양	4.04	3.56	0.48	7
글로벌 역량	글로벌 자기효능감	4.27	3.57	0.70	2
	타문화 수용	4.28	4.01	0.27	13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4.36	3.52	0.84	1
	창의적 능력	4.26	3.78	0.48	7
창의융합역량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4.23	3.58	0.65	4
	융합적 사고 능력	4.40	3.76	0.64	5
봉사헌신역량	공감능력	4.30	4.08	0.22	14
동시인선국당	자발적 실천능력	4.28	3.85	0.43	9
	의사소통 능력	4.51	3.91	0.60	6
소통협업역량	협업 능력	4.37	3.96	0.41	11
	갈등조정 능력	4.35	3.95	0.40	12

인스타그램 & 카카오톡 채널 5 기 인증샷 이벤트



'제296호 을지대학보'를 읽고 가장 맘에 드는 기사를 골라 한줄평과 함께 인증샷을 올려주세요!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이벤트 기간 2023.12.11(월) ~ 2023.12.15.(금)

당첨자 발표 2023.12.19.(화) 예정, 학보사 SNS 공지 및 개별연락

당 첨 인 원 20명

이벤트 상품 문화상품권 1만원

문 의 031-740-7126 / 카카오톡 채널 '을지대학교 학보사'

이벤트 참여방법

- ① 학교 홈페이지 및 학보사 SNS의 링크에 있는 학보 혹은 교내에 비치된 종이 학 보를 열람한다.
- ② 학보사 **인스타그램(@eulji_press)**을 검색하고 팔로우한다.
- ③ 학보에서 마음에 드는 기사를 찍거나 캡쳐한다.
- ④ 인스타그램 게시글 및 스토리로 학보사 인스타그램 태그 및 한줄평을 작성하여 업로드한다.

유의사항 ① 인스타그램 비이용자는 **카카오톡 채널(을지대학교 학보사)** 친구추가 후 'SNS 이벤트 참여'를 클릭하여 해당 이벤트를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 ② 당첨자 발표일 기준 인스타그램 팔로우 및 카카오톡 채널 친구가 아닌 경우, 당첨에서 제외됩니다.
- ③ 비공개 계정은 업로드 확인이 불가능하여,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④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벤트 참여 시,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11일 월요일 기자수첩 011

경로우대?

지하철 경로 우대권 개찰구 안내 음성

대한민국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경로 우대권을 통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경로 우대권을 개찰구에 찍으면 부정 승차를 막기 위한 "어르신 건강하세요" 등과 같은 음성이 나온다. 대놓고 무안을 주는 것이냐는 고령층의 불만이쏟아지고 있지만, 이 안내 음성 덕분에 부정 승차가 절반이나 줄어들었다며 멘트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한 학생기자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최은진 학생기자 eunjin7522@naver.com



반대 ○ 강주연 학생기자: 나는 지하철 경로 우대권 개찰구 안내 음성에 반대해. 이는 멘트와는 상 관없이 다른 연령층과 노인을 음성으로 공개적으로 구분 지음으로써 노인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어. 실제로 일부 65세 이상 연령층이 "대놓고 노인이라고 낙인찍는 행위", "공짜로 태워준다고 생색내는 것이냐?"라는 등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 이에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수 있지. 소수라도 기분이 나쁠 수 있다면 정책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찬성 ♠ 설지은 학생기자: 나는 주연이의 의견과 반대야. 이 제도는 지하철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인 제도야. 처음 도입했을 땐 '어르신 건강하세요'라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어르신'이라는 단어가 거슬린다는 민원에 따라 '건강하세요'라는 음성만 표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의 무임승차 중 51.7%가 경로 우대용 카드를 부정사용한 사례인 만큼 지하철 경로 우대권 개찰구 안내 음성은 좋은 시도라고 생각해.

찬성 ○ 맹지환 학생기자: 지은이 의견에 동의해. 현재 경로 우대카드와 다른 카드를 구분하는 방법은 개찰구에 뜨는 LED의 색깔을 보는 것인데, 안내 음성과는 달리 보기도 힘들고 사람들도 어떤 색이 어떤 카드를 의미하는지 잘 알지 못해. 작년 경로 우대권으로 인한 부정 승차 부과금이 13여억 원인데, 노인의 인구가 늘고 있는 만큼 부정 사용도 늘어난다면 기존 재정난이 더욱 심해질 거야.

찬성 ♠ 황하윤 학생기자: 맞아. 이는 경로우대 카드를 현행 만 65세 이상 노인이 아닌 다른 가족들이 돌려 쓰는 경우가 많아 부정 승차를 막기 위한 조치로 지하철 경로우대 교통카드 음성 멘트 안내를 시행하게 된 거야. 이는 지난해 서울교통공사 적자가 1조 2,000억 원에 달하기 때문이었던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해. 부정적인 반응을 돌릴 방안만 제대로 마련된다면 오래 유지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으로 생각해.

반대 ○ 윤채연 학생기자: 하지만 이런 반발이 나온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 어르신들이 사회에서 알게 모르게 받는 무시와 비슷한 맥락으로 느껴져서일 거야. 경로 우대권은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어르신들이 차별받는 기분을 느끼고, 불편하게 하면서까지 시행하는 것은 취지와 맞지 않다고 봐. 불편할 수 있는 단어를 쓰기보단 차라리 대구 지하철의 경우처럼 새소리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 그저 똑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는 사람일 뿐인데 고작 음성 멘트하나로 이런 기분을 느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반대 ○ 김범진 학생기자: 또한 최근 노인 운전에 대한 사회적 이슈로 인해 노인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많이 늘었다고 해. 그러나 지하철 안내 음성 멘트로 인해 65세 이상 노인 분들의 통행이 현격히 줄어들 수 있어. 결국 이 제도는 원래 취지인 어르신 복지와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려는 취지와는 거리가 멀어지지. 국가는 안내 멘트에 불편감을 느끼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으려는 노인들을 배려해야하지 않을까?

경로 우대권 개찰구 안내 음성으로 인해 부정 승차가 50%나 줄었기에 필요하다는 주장부터,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배려가 오히려 불편감을 초래해 취지에 맞지 않다는 입장까지 학생기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다.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을 표함과 동시에 부정 승차 예방 효과를 위해 시작한 음성 안내 제도, 그 중간 타협점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

~

학우들의 소리 엽서

저희 학보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해드립니다. 모두의 학보를 만들어보고자 '소리 엽서'를 받고 있습니다. 성의껏 작성하여 주시는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Q1. 이번 호기사 중 좋았거나 부족한 것은? (기사내용) Q2. 다음 호에 실었으면 하는 기사는? (인물추천, 기사 등)

295호 소리 엽서 당첨자 -

미용화장품과학과 김아영, 물리치료학과 신미지, 물리치료학과 강주영, 물리치료학과 이혜원, 물리치료학과 김주연, 임상병리학과 채명진, 간호학과(의정부) 노유정, 간호학과(의정부) 조정인, 의학과 조지원, 의학과 정지윤

人工	10414
	I YI KI

하고	승니니	시르	여라뉜
익끄	「 약빈	이름	언닉서

을지대학보 제296호

을지대학교 발전기금·장학금 모금 캠페인

2023년 12월 11일 월요일 012

"여러분은 **을지대학교**의



새로운 100년을 이끌어 갈 **든든한 후원자**입니다."



QR 코드를 통한 신청서 작성



발전기금 QR코드



장학기금 QR코드



지로통지서 후원(지원금액 자율)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 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후원방법 02

앱 사용(신한은행 SOL 앱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전체메뉴 📦 이체 📦 대학기부금 이체



학교명 검색



① 발전기금: 을지대학교 선택 ② 장학금: 을지대학교(성남) 선택



※ 출연해 주신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자동으로 등록되고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식 퀴즈

Q. 지난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 현안 관련 현수막은 신고하지 않아도 실시할 수 있다는 요지 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들이 게시되며 지자체들이 정당 현수막의 게시 장소와 개수를 제한하는 조례를 마련하여 현 수막을 관리하고 있다. 이때 조례는 지정한 해당 지자체 내에서만 발생하는데, 지정하는 주체는 국회가 아닌 OOOO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학보 배부대에 있는 소리엽서함에 넣어주시면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온라인 소리 엽서 제출 방법

- ① 카카오톡 채널 '을지대학교 학보사' 검색 후 친구 추가하기
- ② '채팅하기' 클릭 후 하단바의 '296호 소리 엽서 제출' 클릭
- ③ 채팅 메세지로 안내되는 '소리 엽서 제출하기' 클릭 후 정보 입력하기

